

## 1950년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본 한복 양상 연구

조우현 · 박민재<sup>†</sup>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sup>†</sup>

### A study on the aspect of Hanbok in newspaper article of the Dong-A Ilbo in the 1950s

Woo Hyun Cho · Min Jae Park<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sup>†</sup>

(2020. 1. 1 접수; 2020. 1. 29 수정; 2020. 2. 3 채택)

#### Abstract

In the 1950s, Korea was forced to rely on foreign aid, relief supplies, and contraband because of the Korean War. At the same time, Western culture also flowed into the country rapidly, which is believed to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Korean clothing culture of the time. It is thought that this trend could be foun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of the time. In the 1950s, newspapers served as the main channel for information acquisition and dissemination. I would like to analyze this tendency focusing on a newspaper article in the Dong-A Ilbo in the 1950s.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hanbok was viewed as an old custom that needed to be improved or old clothes that had to be changed to Western clothes. As a result, the doubles system of both hanbok and Western clothes collapsed, and hanbok changed to an evening or ceremonial dress. From the 1960s, Korean fashion quickly changed to a more western style.

*Key Words:* Hanbok(한복), 1950s(1950년대), newspaper article(신문기사), Dong-A Ilbo(동아일보)

#### I. 서론

1945년 세계정세 변화에 의한 갑작스런 식민지배의 종료, 곧 이어 시작된 미군정(美軍政),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전쟁 후에는 모든 물자가 부족했었다. 산업

시설이 어느 정도 복구되고 생산력을 갖추기 전까지 1950년대는 구호품과 밀수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왔고 이와 함께 서구 문화도 급격하게 유입되었다. 급격한 서구 문화의 유입은 당시의 한국 복식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의 복식문화는 한복에서 양장(洋裝)으로의 변화를 빠르게 겪

<sup>†</sup>Corresponding author ; **Min Jae Park**  
E-mail : bakminjae@yahoo.com

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당시의 잡지와 신문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신문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기 대중들의 주요 관심사와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황덕순 외, 1994). 또한 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사들과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신문이 갖고 있는 보도적 기능, 지도적 기능, 오락적 기능, 광고적 기능 등을 통하여 신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정보습득, 인식적 태도의 변화, 정서적 행동의 변용, 행동적 태도의 변화를 갖게 한다(서정우 외, 2001).

1950년대는 지금과는 달리 신문이 정보 습득과 전파의 가장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계몽적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사회 방향 또는 어떤 의도에 의한 개선을 독자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에 간행된 신문의 한복에 관한 기사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기사들이 당시까지 유지되던 한국 전통 의복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시의 전통적인 복식 생활에 요구되었던 서구화 또는 현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 동아일보에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양재(洋裁)에 관한 '지도적' 기사가 실려 일반의 양재(洋裁) 보급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사에는 양장(洋裝) 패턴과 제작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 가정에서 실제 옷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유행 패션의 제안과 해외 패션계의 흐름 등을 소개하고 있어 당시의 복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문에는 각 신문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들어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기사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차후 진행 될 다른 신문의 기사도 분석하여 이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 II. 195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한복 관련 기사 분석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 창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신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친일 논조를 통해 총독부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 8월 11일 폐간 되었다가 1945년 12월 1일에 속간호를 내면서 다시 발간을 시작하였다(채백, 2014).

1950년대 동아일보는 4면(월요일: 2면 구성)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으며 요일별로 가정, 문화, 예술, 어린이 등의 주제별 기사와 각종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중 가정(家庭)에 관한 면(面)은 주부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요리, 복식, 미용, 육아, 인테리어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정보지와 지도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정(家庭)에 관한 면(面)은 일요일자에 실렸는데 화요일, 목요일자에도 구성되어 정해진 요일별 구성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家庭)에 관한 내용 외에도 문화·예술에 관한 주제가 번갈아 가며 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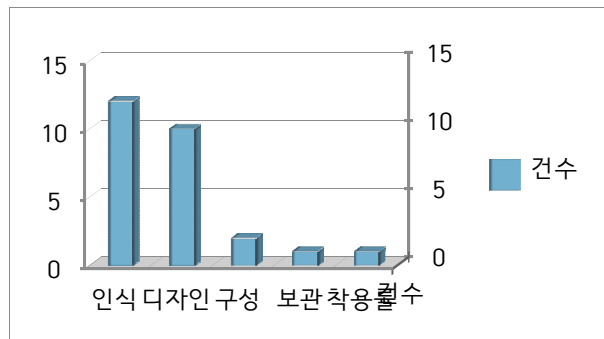
1950년 1월 1일자부터 1959년 12월 31일자까지 실린 복식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약 180여개의 기사를 선별 할 수 있었다. 복식 관련 기사의 주제는 당시의 유행 경향과 해외 유행 패션 정보의 소개, 당시 복식생활의 권장사항, 양재학원 등의 졸업 발표회 소식과 패션쇼의 감상평, 양재(洋裁), 의류관리방법, 나일론 등 당시 새롭게 등장한 화학섬유 소재의 소개 등이 있었다.

이 중 한복과 관련하여 총 26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26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주제별로 기사를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당시의 전통한복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주로 다룬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 다음으로 유행하는 한복 디자인과 한복을 모티프로 한 양장 디자인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다. 그 외에 한복 구성(構成), 보관, 착용률을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었다. 이들 기사의 날짜와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위의 한복 관련 기사들은 한복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 관한 인식 기사가 12건, 한복의 색깔 등 한복 디자인에 관한 기사가 10건, 한복 관련 구성(構成)에 관한 기사가 2건, 한복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기사가 1건, 한복 착용률에 관한 기사

〈표 1〉 195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한복 관련 기사의 날짜별 제목과 주제 분류

	날짜	제목	주제
1	1952.11.16.일	壇上壇下	인식
2	1953.08.21.금	마음의 再建譜 (2)	인식
3	1954.11.25.목	주부의 활동복	인식
4	1955.06.07.화	여름의 洋裝, 깃이 없는 새 스타일	인식
5	1955.08.28.일	빛깔의 調和-밝고 시원하고 은은한 品位	디자인
6	1955.11.06.일	후레야코트	구성
7	1955.11.23.수	아나운서 募集에서 본 女性的의 직업전선	착용률
8	1956.01.21.토	壇上壇下	인식
9	1956.01.29.일	저고리 본뜨기-새로운 한 가지 樣式	구성
10	1956.10.21.일	流行과 服裝-自身을 把握하라	디자인
11	1957.06.03.월	라디오 HLKA방송 순서-여름철 韓服에 對해서	디자인
12	1957.06.12.수	여름철의 妊婦攝-腹部保溫 等 留意할 點 몇 가지	인식
13	1958.01.12.일	固有美살려서-나드리옷을 이렇게	디자인
14	1958.02.21.금	環境과의 양상불-봄과 韓服 빛갈	디자인
15	1958.04.05.토	겨울옷의 保管-韓服	관리
16	1958.04.05.토	古典衣裳	디자인
17	1958.05.08.목	五月과 韓服색갈	디자인
18	1958.06.07.토	어린이와의 外出	인식
19	1958.08.29.금	가을의 衣裳-올 플랜을 이렇게	디자인
20	1959.01.06.화	政界 스녘	인식
21	1959.04.29.수	映畫人團 28日 發程 第六回아시아 映畫祭에	인식
22	1959.05.07.목	존·포드 監督 歡迎파티 盛況	인식
23	1959.06.02.화	政界 스녘	인식
24	1959.10.18.일	華麗한 色의 調和 -7回 冬季 햇손쇼오	디자인
25	1959.12.31.목	韓復의 바리에이숀	디자인
26	1959.06.23.화	새스타일의 農民?	인식



〈그림 1〉 1950년대 동아일보의 한복 관련 기사 주제별 건수

가 1건 있었다. 주제별 기사 건수의 비율을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한복의 인식에 관한 기사

1950년대 동아일보의 한복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면 약 50%에 해당하는 기사가 당시 한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기사였으며 기사의 대부분은 한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복에 나타나는 사치성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양장(洋裝)과 비교하여 불편한 한복의 기능성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한복에서 느껴지는 고루함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한복에서 나타나는 사치성에 관한 기사로 1953년 8월 21일(금요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다. “마음의 재건보(再建譜) (2) - 대우(待遇)받으려면 호사(豪奢)해야... 밀수(密輸)는 사치(奢侈)가 조장(助長)하는가”의 제목아래 전후(戰後)의 궁핍한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복식 생활에서의 사치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기사는 전쟁 중인 1952년 봄, 임시수도였던 부산 광복동(光復洞) 사거리에서 한 남성의 균중연설을 담고 있다. 이 남성은 당시 사람들의 복식 생활을 전시 체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외국의 “스타일북”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성들의 마카오 양복 착용과 여성들의 양단 저고리와 벨벳치마의 한복차림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특히 벨벳치마를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치품의 유행으로 인하여 밀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토로 하고 있다. 당시 국무총리인 장택상에 의해 “사치품 일체 판매금지령”이 내려짐에도 밀수는 늘어나고 사치품조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난하며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52년 6월 24일(화요일)자 신문에 “전시생활개선법”에 의거하여 사치품 판매단속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1954년 4월 19일(월요일)자 신문에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위시한 시내 각처에서 직물과 의류 밀수품 1300만환어치를 압수한 기사가 있었으며 1952년 12월 8일(월요일)자 신문에는 고급양복지와 와이셔츠 등 의류(衣類)원단과 의류(衣類) 약 80억 원의 밀수가 적발된 기사도 있었다. 이러한 사치품 밀수 관련 기사는 1950년대 말 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당시의 사치품에는 자동차, 양주, 시계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대표적인 사치품 중의 하나가 밀수(密輸)한 의류와 원단들이었다. 1952년 6월 13일(금요일)자 신문에는 벨벳치마와 뉴퉁치마를 사치품으로

단속하는 통에 전쟁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을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가십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1950년 이전부터 있었던 벨벳치마와 뉴퉁치마의 유행이 식지 않고 전쟁 중에도 유지됐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1월 19일(목요일)자 신문에는 “아내는 사치(奢侈)에 눈 어둡고...”의 기사가 실렸다. 아내의 사치에 비판하여 실직(失職)한 남편이 자살 한 사건에 관한 기사이다. 아내의 사치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름이면 ‘하이·힐’에 ‘파라솔’, 겨울이면 ‘비로-드’ 치마저고리에 양단 두루마기로 몸을 휘감고 들떠 돌아가는 바람에...”라고 하여 하이힐과 양산, 벨벳 치마저고리와 양단 두루마기를 사치품의 예로 들고 있다.

벨벳이나 양단 등 당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던 고급 의류소재로 만들어진 한복이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한복의 인식에 관한 기사는 한복의 기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 역시 한복에 관하여 부정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한복은 아름다운 전통복식이지만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는 양장(洋裝)과 비교해 현대 생활, 특히 서구식 입식 생활에 불편하며 제작 시 원단의 소요량도 많아 한복 위주의 생활에서 양장 위주의 생활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54년 11월 25일(목요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이러한 계몽적 복식생활의 변화 요구를 살펴볼 수 있다. “주부의 활동복”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주부들을 위한 바지에 관한 기사이다. ‘의생활의 현상과 장래의 방침’, ‘제작의 현상과 개선’, ‘활동복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당시의 한복 위주의 의생활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제기하면서 여성의 바지 착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의 복식양식을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한복과 양복 착용의 ‘이중(二重)생활’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복생활에도 장점이 있지만 양복에 비해 불편한 점이 있어 한복 착용의 고집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변해가는 시대요구에 맞춰 의생활도 좀 더 활동적이고 능률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의복을 제작하고 세탁



〈그림 2〉 해외 행사 참여시 여배우의 한복착용  
(출처: 映畫人團 28日 發程. (1959. 4. 29). 동아일보 p. 4.)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막대하여 복장을 간편하게 개량한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주부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가정생활의 충실’과 ‘사회인으로서의 교양’을 얻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복은 외출복으로는 적당하나 가정에서의 활동복으로서는 불편하여 현대 생활에 맞는 활동복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변화하는 생활양식과 전통복식 착용의 불편한 점을 들어 간편하고 활동적인 양복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 사회의 한복과 양장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전통복식, 특히 여성의 한복 착용은 불편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양복은 현대 생활에 어울리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의 양을 줄여주는 확실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긴치마의 한복은 외출복으로는 무방하다고 하여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한복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복과 양복 착용의 ‘이중구조’를 하나의 시대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지의 패턴과 제작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성의 바지가 그해 겨울에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있어 1954년 겨울 당시에는 여성의 바지 착용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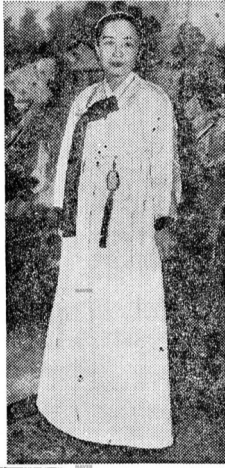
이처럼 가정에서의 양장 착용 권장은 1956년 9월 16일(일요일)자 ‘양장과 가정생활-품과 살림에 맞도록’ 기사에도 보인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복이 다른 나라의 복식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



〈그림 3〉 해외 인사 초청연에서의 한복착용  
(출처: 존·포드 감독 歡迎파티 盛況. (1959. 5. 7). 동아일보 p. 4.)

어남을 전제하고 있으나 세탁 시 일일이 뜯어서 빨아야 하고 다듬어야 하는 등 한복의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지적하며 이러한 점에 비해 양장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사 역시 가정생활에서의 양장 착용이 편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복의 인식에 관한 주제는 고루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복식이 갖는 고루함에 대해서는 특히 남성의 한복차림에서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 1952년 11월 16일(일요일)자 신문에 실린 가십성 기사에 따르면 두루마기와 고무신 착용을 고집해온 국회의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복을 입어야만 시장이나 농촌에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십성 기사가 1956년 1월 21일(토요일)자 신문에 실려 있다. 마찬가지로 항상 한복을 착용해온 모 국회의원이 회의 차 재무차관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옷차림만 보고 진정이나 하러운 시골 노인으로 착각하여 인사도 받지 않는 실례를 범해 거듭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 두 기사에서 보면 한복은 ‘시골’, ‘노인’, ‘구식’ 등의 단어로 설명되어 한복이 고루하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1959년 6월 23일(화요일)자 신문에는 “새스타일의 農民?”이라는 제목으로 한복에 구두를 신고 손목시계를 찬 차림을 새로운 농민 스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복을 시골사람을 대변하는 차림으로 규정하는 듯 한 내용이었다. 또한 1959년 6월 2일(화요일)자의 신문에서는 모 국회의원의 여름 한복차림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4〉 한복 스타일의 제안

(출처: 교유미 살려서, (1958. 1. 12), 동아일보, p. 4.)



〈그림 5〉 한복색상 제안

(출처: 환경과의 양상블, (1958. 2. 21), 동아일보, p. 4.)

“灰色 황나 바지에 흰 인조 속적삼, 보라색 사저고리, 연분홍 생수 조끼, 옥색 황나 마고자, 곱게 다듬은 옥색 모시배기 두루마기, 거기에 토수와 버선 그리고 예전 마른신본의 特製 灰회색 고무신까지 …”라고 그의 옷차림을 일일이 소개하고 다른 의원이 이런 그의 차림을 조선시대 양반에 빗대어 대감(大監)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일종의 벼슬이니 양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며 약간의 조롱을 섞어 기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남성의 한복 착용이 주는 전근대적인 이미지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의 사치성이 남성한복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기사 외에 긍정적 인식의 기사도 있었다. 해외에서의 행사나 외국인을 대상을 하는 행사 참여 시 한복을 착용한 사례에서는 한복이 갖고 있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959년 4월 29일(수요일)자의 해외 영화제 참여시의 한복 착용(그림 2)과 1959년 5월 7일(목요일)자의 미국 유명 영화감독 초청 연회에서 한국 여배우들의 한복 착용(그림 3)에서는 한복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나 전통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한복이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소로 작용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복에 대하여 ‘전통복식’으로서의 역할 만을 강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복 디자인에 관한 기사

1955년 8월 28일(일요일)자 “빛깔의 調和-밝고 시원하고 은은한 品位”의 기사에서는 복장의 아름다움은 색상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당시의 한복 색상이 너무 화려하여 오히려 개성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은은한 색상의 조화를 추천하며 색감에 대한 감각을 키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56년 10월 21일(일요일)자 신문에서는 양장(洋裝)에는 다양한 유행의 변화와 양상이 나타남을 설명하면서 요사이 유행의 변화가 적은 한복에서도 이러한 유행이 나타나 동정과 깃의 넓이가 남자 저고리만큼 넓어진 유행을 소개하고 있다.

1958년 1월 12일(일요일)자의 “固有美 살려서-나드리옷을 이렇게”의 기사에서는 한복이 갖는 일상복으로서의 불편함을 언급하면서 한복을 나들이옷으로 추천하고 있다(그림 4). 이러한 외출복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을 제안하면서 소매 끝동과 치마단을 안으로 약간 접어 넣어서 더러움이 타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구성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귀걸이와 노리개 등의 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방법과 치마·저고리의 색상을 같은 색으로 통일하면 키가 커 보이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소개하여 치마·저고리의 색





〈그림 6〉 노라노 여사의 패션쇼

(출처: 華麗한 색의 調和. (1959.10.18). 동아일보. p. 4)



〈그림 7〉 한복 응용 드레스

(출처: 韓服의 바리에이션. (1959. 12. 31). 동아일보. p. 4)

상을 같은 색으로 통일하는 디자인이 195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에 많이 소개되었던 양장 드레스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한복은 일상복보다는 이브닝드레스처럼 외출복이나 특별한 날에 착용하는 예복으로 착용범위가 좁아지고 있었다. 또한 무명으로 한복을 지을 경우에는 6,000~7,000환 정도, 포플린으로 지을 경우 3,000~4,000환 정도 비용이 든다고 소개하고 있어 다양한 한복 소재의 사용과 한복 가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58년 2월 21일(금요일)자 신문의 “環境과의 양상불 봄과 韓服빛갈”의 기사 역시 주로 한복의 색상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기사이다(그림 5). 기사에서 특히 한복은 색상의 조화가 중요하데 이는 계절감이 색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조선시대 전통 한복의 배색과 월(月)별 사용 소재를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봄 한복으로 옥색치마에 흰 저고리 또는 취월(翠月)<sup>1)</sup> 옥색 치마에 분홍저고리를 많이 입었고 노인들은 회색치마에 흰 저고리를 많이 입었으며 옷감은 무명, 모시, 명주와 삼팔, 노방, 감사 종류가 많이 사용됐는데 2월에는 국사, 3월에는 숙고사, 4월에는 관사와 순인, 5월에는 은조사, 외사, 모시, 7월에는 생

노방 등의 월별 소재를 사용하여 봄의 계절감을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뉴퐁이 나오면서 이러한 소재들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근대시기에 신여성들이 분홍이나 옥색으로 치마·저고리를 맞춰 입으면서 한복의 가치가 재인식되었다고 하면서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한복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사의 필자가 근대시기를 거치면서 달에 따라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했던 전통과 뉴퐁 같은 신소재로 인하여 다양한 전통 소재가 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복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양장 패션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1959년 10월 8일(일요일)자에 노라노여사의 제 7회 동계 패션쇼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한복을 변형시킨 이브닝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우아하고 화려한 색의 조화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그림 6). 1959년 12월 31일(목요일)자의 신문에 노라노여사의 한복을 디자인 요소로 응용한 드레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그림 7).

1956년 5월 서라벌양재전문학원(徐羅伐洋裁專門學院)에서 costume show가 열린 이후 10월 반도호텔에서 노라노여사의 패션쇼가 열렸다(유

1) 취월(翠月): 남색과 비취색에 가까운 파르스름한 색. 또는 그런 물감.



〈그림 8〉 아리랑드레스

(출처: 양단 아리랑드레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127971&ccbaKdcd=79&ccbaAsno=06130000&ccbaCtcd=11#>)



〈그림 9〉 아리랑드레스를 착용하고 퍼레이드 중인 오현주

(출처: 양단 아리랑드레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127971&ccbaKdcd=79&ccbaAsno=06130000&ccbaCtcd=11#>)



〈그림 10〉 아리랑드레스

(출처: 양단 아리랑드레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127971&ccbaKdcd=79&ccbaAsno=06130000&ccbaCtcd=11#>)



〈그림 11〉 아리랑 드레스를 착용한 오현주

(출처: 양단 아리랑드레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127971&ccbaKdcd=79&ccbaAsno=06130000&ccbaCtcd=11#>)



〈그림 12〉 양단 아리랑드레스

(출처: 양단 아리랑드레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127971&ccbaKdcd=79&ccbaAsno=06130000&ccbaCtcd=11#>)



〈그림 13〉 양단 아리랑드레스를 착용한 오현주

(출처: 양단 아리랑드레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2127971&ccbaKdcd=79&ccbaAsno=06130000&ccbaCtcd=11#>)

수경, 1989). 이 후 1959년에 노라노여사의 제 7회 패션쇼가 열린 것이다. 1956년 10월 이후 매년 봄·가을 두 차례씩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9년 10월 8일(일요일)자의 기사에는 〈그림 6〉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림 7〉의 작품이 제 7회 패션쇼에 출품된 한복변형 드레스로 보인다. 1959년 12월 31일(목요일)자의 기사는 보도 기사가 아니라 노라노여사의 한복의 디자인에 관한 칼럼으로 〈그림 7〉은 이전 작품을 인용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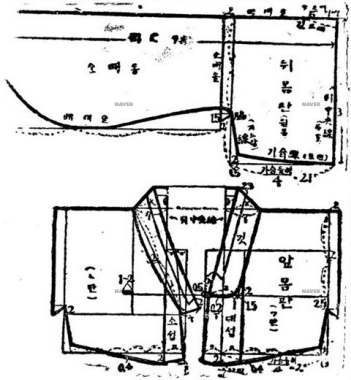
또한 〈그림 7〉의 이브닝드레스는 아리랑드레스로 명명되어진 작품인데 1959년 한국대표로 미스유

니버스에 출전한 오현주가 착용하였다. 이때 모두 3벌을 착용했는데 저고리를 벗으면 드레스가 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각각 퍼레이드와 개회식 때 착용하였으며 의상상을 받기도 했다(황정순 2014).

〈그림 8〉, 〈그림 10〉, 〈그림 12〉는 1959년 노라노여사가 디자인한 아리랑 드레스이고 〈그림 11〉, 〈그림 13〉, 〈그림 15〉는 오현주가 미스 유니버스 출전시 착용한 모습이다. 양단드레스 3벌은 등록문화재 제 613호로 지정되었다.

### 3. 한복의 구성법에 관한기사





〈그림 14〉 여성용 저고리 패턴

(출처: 저고리 본뜨기. (1956.1.29). 동아일보 p. 4.)

한복의 구성과 관련한 기사가 2건 있었다. 1956년 1월 29일(일요일)자에 실린 여성용 저고리 패턴을 소개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한복은 양재(洋裁)에서 사용하는 원형(原形) 패턴이 없으며 또한 신체 여러 부위의 사이즈를 측정하여 그것을 패턴에 반영하는 입체적인 방식과 달리 착용자의 체격 특징과 새로운 디자인의 반영 없이 색상으로만 약간의 변동(變動)을 주는 단순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한복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재(洋裁) 패턴처럼 다양한 부위의 치수를 반영하여 설계한 여성용 한복 저고리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여성용 한복 저고리 패턴은 가슴둘레, 목둘레, 행장(화장)을 기본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제도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그림 15).

뒤 몸판 옷기리 三一센치의 뒤 中央線과 가슴둘레를 四分之一로 나눈 치수 二一센치 기슭線을 그어 구형을 만든다. 역가솔에서 二센치 연장한 소매솔에서 밑으로 二센치 다시 延長하여 七二센치 행장과 구형을 만들어 그림의 배래솔을 그려 줌, 뒤 몸판과 같은 구형을 앞몸판에 그리고 기슭線을 五等分하여 五分之一(〇票)를 左로 延長하여 二分之一소매솔에서 二센치 올린 線과 구형을 매저 대섭의 면적을 잡

標準寸數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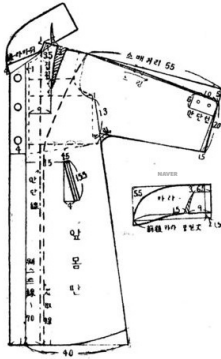
名稱	體格		
	大	中	小
가슴둘레	90	85	80
목 둘레	38	36	35
行 丈	75	72	69

〈그림 15〉 표준촌수

(출처: 저고리 본뜨기. (1956.1.29). 동아일보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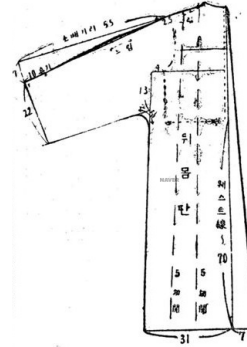
는다, 앞치짐 二센치를 下려주고 五分之二點을 연결하면서 〇·四의 曲線을 내줌, 겨드랑에서 二·五센치 올리고 橫線을 그우고 섭머리에서 一·五센치 들어가 깃고대 七센치와 맺는다. 깃머리귀는 뒤로 二센치와 左로 一센치 깎어주면서 〇·二센치의 曲線을 주고 五미리 들어간 點까지 X票 치수로 하고 깃고대에 옮겨 매저준다.

뒤 길이를 31cm로 정하고 있으며 앞치짐은 2cm이다. 진동선이 소매쪽으로 2cm 이동해 있는데 봉제 시 겨드랑이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깃머리의 시작점이 겨드랑이점에서 2.5cm 올라간 위치에서 시작해 목을 완전히 감싸며 앞섶을 여머지게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춘추양재전문학원(春秋洋裁專門學院) 원장 최만실(崔滿實)이 작성한 것으로 이 저고리 원형 패턴은 춘추양재전문학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이(2016)의 연구에 의하면 한복 제작에 관한 문헌은 1925년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가 발행된 이후 1948년 이소담의 『재봉교본(裁縫敎本)』과 1949년 손정규의 『조선재봉(朝鮮裁縫)』가 발행되었다. 본격적인 교재용 한복구성 관련 책은 1959년 발행된 석주선의 『우리나라 옷』이다. 이 책에서는 연령별 표준 치수를 제시하였으며 유상동을 기준으로 양재(洋裁)에서 보이는 본격적인



〈그림 16〉 프렌치 슬리브 코트

(출처: 후레야·코오트, (1955. 11. 6). 동아일보, p. 4.)



〈그림 17〉 프렌치 슬리브 코트

(출처: 후레야·코오트, (1955. 11. 6). 동아일보, p. 4.)



〈그림 18〉 아나운서 지원자들

(출처: 아나운서 募集에서 본 女性の 직업전선, (1955. 1. 23). 동아일보, p. 3.)

산출식 원형 구성법을 보이고 있다. 『재봉교본』에서는 신장, 유상동, 목둘레를 기본치수로 사용하였으며 5세, 10세, 15세, 성인의 표준치수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부분의 치수를 환산하여 사용하는 환산법에 의한 제도를 선보였다. 또한 자세하지는 않지만 양재(洋裁)식 패턴 그림을 제시하였는데 저고리 구성법에 있어서 최초의 기본 원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해 발행된 『조선재봉』은 『재봉교본』에 비해 자세한 설명과 수구, 싹길이, 동정너비 등에서 산출식 치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형 그림은 없었다. 따라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여성 저고리 원형은 춘추양재전문학원에서 양재(洋裁)식으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가슴둘레와 화장의 치수만 갖고 바로 마름질하여 저고리를 만들던 재래의 방법에서 신체의 여러 치수를 반영한 서양식 패턴의 영향을 받은 저고리 원형 제작방식이 1950년대부터 시

작된 것으로 보인다. 1955년 11월 6일(일요일)자 신문에 실린 “후레야·코오트” 기사에서는 몸판과 연결된 형태의 ‘프렌치 슬리브’가 달린 코트에 관한 양재(洋裁)를 선보이고 있는데 ‘프렌치 슬리브’를 사용한 이유를 한복 위에 착용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겨울에는 한복 위에 두루마기대신 양장(洋裝)의 코트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6),(그림 17). 한복착용에 있어서 코트가 두루마기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4. 한복 착용 비율에 관한 기사

1955년 11월 23일(수요일)자의 “아나운서 募集에서 본 女性の 직업전선”의 기사를 통해 1950년대 당시의 실제 전문직 여성들의 양장 대비 한복

착용 비율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서울 중앙방송국의 일본어 방송을 위한 여성 아나운서 모집에 관한 것으로 여성들의 취업에 관한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다. 1~2명을 채용하는 모집에 119명이 몰린 것은 아나운서가 여성들에게 인기직업인 면도 있었겠지만 여성들의 취업 범위가 좁았고 취업률도 낮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비단 이러한 당시의 여성 취업에 관한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지원자들을 연령, 학력, 경력, 출신지 별로 분석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지원자들의 복장도 양장과 한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19명의 지원자 중 93명이 양장 차림이었으며 이 중 57명은 코트도 함께 착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6명이 한복차림으로 지원을 했다. 물론 연령, 학력, 경력과 연결하여 분석을 하지 않아 26명의 한복차림 지원자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지원자 대비 약 22%에 해당하는 여성이 한복차림으로 아나운서 모집에 참여하고 있어 당시 한복착용비율을 짐작해 볼 수 있다(그림 18). 그러나 모집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이었고 교원 경력을 포함하여 직업경력의 수준도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의 한복착용 비율이 반드시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한복이 일상복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출복으로서의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한복 보관에 관한 기사

한복의 보관에 관한 기사는 1건이 있었는데 1958년 4월 5일(토요일)자의 “겨울옷의 보관(保管)”에서는 봄을 맞아 겨우내 입었던 겨울옷의 보관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직물(毛織物), 양복, 모자, 한복, 방충제 등의 소재목으로 각각의 보관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모직물은 세탁 시 줄어들지 않게 조심할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양복과 모자 등은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보관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한복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복 중에도 양단과 같은 손질하기 힘든 옷은 한두 번 입고 그대로 옷장에 넣어두기 쉽다. 그러나 洋服보다 더 손상되기 쉽고 때가 절기 쉬운 것이 韓服이다. 가끔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입은 저고리나 치마라도 가을까지 保管해 두기위해서는 물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다듬어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겨울동안 입었던 한복을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한복의 관리가 양복보다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드라이클리닝을 했더라도 물빨래를 해서 보관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드라이클리닝을 했음에도 물빨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설명은 한복은 양복에 비해 관리의 측면에서도 비실용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현재도 한복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세탁에 관한 것이다.

## Ⅲ.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본 1950년대 한복 문화

지금까지 195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한복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한복 관련 기사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당시의 한복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양장이 소개된 것은 조선 말 개항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95년에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斷髮令)이 공포되었고, 군제 개혁과 함께 서구식 군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궁중과 상류층에서의 양복 착용이 점차 증가하였고 일부 여성들은 양장을 입기 시작했다.

이후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이 높아졌고 양장착용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여성들, 특히 주부들의 복식은 한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로 서양식 헤어스타일과 구두, 양산, 솔 등 양장 액세서리를 한복에 겸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미군정이 들

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미국문화의 수용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이러한 미국문화의 수용은 가속화 되었다. 이전까지는 일부 여성과 학생을 비롯한 신여성이라 불리던 일부계층에 국한한 양장착용이 일반으로까지 본격화되어 1950년대 우리나라 여성의 복식문화는 한복과 양장(洋裝)중 양장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속화되었다. 전쟁을 거치며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의 기능적 불편함이 대두되었고 양장에 비하여 원단이 많이 소요되는 한복은 물자부족으로 인하여 선호도가 떨어졌다. 또한 남성인구의 감소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전통복식은 서구화의 변화를 요구받았다. 정성호(1999)의 연구에 의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20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약 68%, 경기도의 경우 약 77%로 높아졌다. 또한 이임하(2010)에 의하면 전쟁미망인은 최소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됐으며, 1952년의 난민등록에 의하면 10만 1835명이었다.

여성과 특히 전쟁미망인은 전후(戰後)의 시급한 사회 복구와 생계를 위해 사회 진출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복식형태 변화는 여성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거의 사회적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한복 관련기사의 50% 이상은 이런 여성의 복식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몽적 논조로 담은 기사였다. 이 기사들에서 여성의 한복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량되어야 할 구습 또는 양장(洋裝)으로 대체되어야 존재였다. 그 결과 한복은 서구의 이브닝드레스와 같은 역할이나 예복으로 그 성격이 변화였다.

한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처럼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여성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사회적 요구였다는 측면은 한복을 사치 풍조의 원인으로 본 시각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양단 저고리와 벨벳치마로 대변된 여성의 한복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사치 풍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전후 국내의 모든 산업시설은 정지되었고 모든 물자를 원조에 의지했었다. 그러나 현대의 물가에 대비해서도 엄청난 금액의 밀수 사건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밀수의 주요 물품중 하나가 고급 양복지나 양단, 벨벳과 같은 의류 소재였다. 전쟁 전부터 시작된 양단 저고리와 벨벳치마의

인기가 전쟁을 겪으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전후(戰後) 한복은 여성 한복의 경우 비활동적인 면과 사치풍조의 원인이라는 두 가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남자 한복의 경우에는 주로 정치인의 한복 착용을 통해 고무한 이미지와 전근대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복의 부정적 이미지는 해외 행사나 외국인이 주 대상인 행사에서는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내재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 외재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중적 인식을 1950년대 신문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인식을 만드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복은 양장과 비교해서 평면적이고 구성적으로 단조로워 유행의 요소가 적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들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한복의 디자인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주로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에 관한 색상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에 더 잘 맞도록 여러 부위의 신체사이즈를 반영한 서양식 원형을 접목한 저고리 패턴이 소개되기도 했다. 가슴둘레와 화장의 치수만 갖고 바로 마름질하여 저고리를 만들던 재래의 방법에서 신체의 여러 치수를 반영한 서양식 패턴의 영향을 받은 저고리 원형 제작 방식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1950년대는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빠른 서구화의 과정을 겪었다. 광복 후에 미군정 통치를 겪으면서 직접적인 미국문화의 유입이 가속화 되었다. 패션 잡지는 물론 스타일북도 유통되었고 외국 영화 등을 통해 해외의 유행패션이 시간의 간극 없이 바로 유입되어 국내에서도 유행하였다. 또한 전쟁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복은 고무하고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장착용이 보편화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여성의 양단저고리와 벨벳 치마의

유행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사치품의 대명사가 되어 또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남성들 역시 정통성이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한복 착용을 한 경우가 있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측면이 있어 보였다. 1950년대 동아일보에서 다뤄진 약 50%의 기사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 신문기사들은 한복 착용에서 양장(洋裝)착용으로의 복식 구조 변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 한복은 생활복, 일상복으로서의 자리를 잃고 예복, 특수복으로 범위가 좁아지며 그 역할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양장 착용의 시대로 변하게 된다.

지금 까지 195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한복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여 당시의 한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10년간의 기사를 살펴보았지만 한복에 관한 기사는 26건으로 약 200여건에 이르는 양장, 양재 관련한 기사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다. 그만큼 의생활 관련해서 1950년대의 관심은 전통복식보다는 양장(洋裝)에 치중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차후 다른 매체와 자료를 통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고 이후의 시기까지도 연구가 이어져 현대 한복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가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을의 衣裳을 플랜을 이렇게. (1958. 8. 29).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8290020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8-29&officeId=00020&pageNo=4&printNo=11103&publishType=00010>
- 겨울옷의 保管. (1958. 4. 5).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4050020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4-05&officeId=00020&pageNo=4&printNo=10957&publis>
- hType=00010
- 김명이. (2016). *전통것을 활용한 신한복 여자저고리 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복년. (1958. 1. 12). 고유미 살려서.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11200209104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1-12&officeId=00020&pageNo=4&printNo=10874&publishType=00010>
- 김봉년. (1958. 2. 21). 환경과의 양상불.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22100209101001&officeId=00020>
- 김봉년. (1958. 4. 5). 古典衣裳.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405002091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4-05&officeId=00020&pageNo=4&printNo=10957&publishType=00010>
- 김봉년. (1958. 5. 8). 五月과 韓服색갈.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50800209104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5-08&officeId=00020&pageNo=4&printNo=10990&publishType=00010>
- 待遇받으려면 豪奢해야 密輸는 奢侈가 助長하는가. (1953. 8. 21).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3082100209202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3-08-21&officeId=00020&pageNo=2&printNo=9311&publishType=00020>
- 빛깔의 調和. (1955. 8. 28).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0828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08-28&officeId=00020&pageNo=4&printNo=10009&publishType=00020>



- 새스타일의 農民?. (1959. 6. 23). 동아일보. 자료  
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62300209103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6-23&officeId=00020&pageNo=3&printNo=11400&publishType=00010>
- 서정우, 한태열, 차배근, 정진석. (2001). *신문학  
이론*. 서울: 백영사.
- 아나운서 募集에서 본 女性的의 직업전선. (1955. 1.  
23).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112300209203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11-23&officeId=00020&pageNo=3&printNo=10096&publishType=00020>
- 아내는 奢侈에 눈 어둡고 六男妹의 子息은 가를길 없  
어. (1956. 1. 19).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6011900209203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1-19&officeId=00020&pageNo=3&printNo=10152&publishType=00020>
- 어린이와의 外出. (1955. 1. 23). 동아일보. 자료검  
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60700209104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6-07&officeId=00020&pageNo=4&printNo=11020&publishType=00010>
- 언제나 韓服으로 一貫해오는. (1956. 1. 21). 동아  
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6012100209201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1-21&officeId=00020&pageNo=1&printNo=10154&publishType=00020>
- 여름의 洋裝 깃(襟)이 없는 새 스타일. (1955. 6. 7).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060700209204001&editNo=1&publishDate=1955-06-07&officeId=00020&pageNo=4&printNo=9927&publishType=00020](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0607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06-07&officeId=00020&pageNo=4&printNo=9927&publishType=00020)
- 映畫人團 28日發程 第 6回 아시아 映畫祭에. (1959.  
4. 29).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429002091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4-29&officeId=00020&pageNo=4&printNo=11345&publishType=00010>
- 유수경. (1990). *한국여성양장발전사*. 서울: 일지사.
- 이임하. (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서울: 책과 함께.
- 政界 스캔. (1959. 01. 06.).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10600209201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1-06&officeId=00020&pageNo=1&printNo=11232&publishType=00020>
- 政界 스캔. (1959. 6. 2).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6020020920101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6-02&officeId=00020&pageNo=1&printNo=11379&publishType=00020>
- 정성호. (1999).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  
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서울: 백산서  
당.
- 制憲國會때부터 灰色 “두루마기” 거문 “고무신”으로.  
(1952. 11. 16). 동아일보. 자료 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2111600209101001&officeId=00020>
- 존·포드 監督 歡迎파티 盛況. (1959. 5. 7).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 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50700209104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5-07&officeId=00020&pageNo=4&printNo=11353&publishType=00010>
- 주부의 활동복. (1954. 11. 25). 동아일보. 자료검

- 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11110020920402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11-11&officeId=00020&pageNo=4&printNo=9748&publishType=00020>
- 채백. (2014). *신문의 역사로 살펴보는 한국 신문*의 특성-신문. 서울: 대원사.
- 최만실. (1955. 1. 29). 저고리 본뜨기.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6012900209204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01-29&officeId=00020&pageNo=4&printNo=10162&publishType=00020>
- 최만실. (1955. 11. 6). 후레야·코오트.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110600209204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11-06&officeId=00020&pageNo=4&printNo=10079&publishType=00020>
- 최숙현. (1956. 10. 20). 流行과 服裝. 自身을 把握하라.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61021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10-21&officeId=00020&pageNo=4&printNo=10428&publishType=00020>
- 韓服의 바리에이션. (1959. 12. 31). 동아일보. 자료 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12310020910403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12-31&officeId=00020&pageNo=4&printNo=11591&publishType=00010>
- 華麗한 色의 調和. (1959. 10. 18). 동아일보. 자료 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101800209203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10-18&officeId=00020&pageNo=3&printNo=11517&publishType=00020>
-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 (1994). 동아·조선일보의 가정생활관련 지면에 실린 기사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89-199.
- 황정순. (2014. 11. 6). [한국의 문화유산] 아리랑 드레스. 대전일보. 자료검색일. 2019. 10. 9, 자료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43173](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43173)